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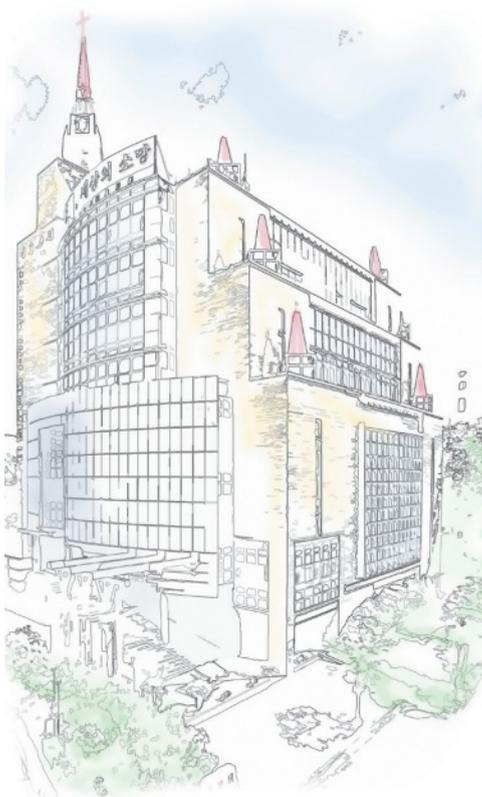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베드로나 유다나

(요 6:69-71)

이종윤 원로목사



베드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 하는 분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신앙고백입니다.

1. 인간의 신앙고백과 주님의 통찰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70절)

주님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 너 참 훌륭하구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열두 제자의 집단적 고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그들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령의 동함을 보고 계셨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는 폭탄선언을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마귀라고 하시면서 가롯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야만 했고, 예수를 판 사람이 가롯 유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시고 이미 다 아셨다면 가롯 유다는 억울하게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서 주님을 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9).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재정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임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 가롯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팔 자러라”(71절)는 말은 그냥 미래형이 아니고 당위적인 미래, 단순한 미래보다는 불가피한 미래,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미래, 확실성이 있는 미래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should’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멜렌’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

냅니다.

2. 가롯 유다를 택하신 동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로 가롯 유다를 택하신 일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완전성을 드러낼 기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히 10:10). 그러나 가롯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냐, 가롯 유다는 제 뜻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인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구도자란 도를 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도를 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한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마치 뜻을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의 뜻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2) 예수님의 지고한 도덕성을 보여주실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고, 또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든 증거 위에 더 첨부하여 아주 온전하게 증거하시려고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서까지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4).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대적자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다음 주 계속)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나라 (출 23:16)

오늘은 맥추감사절

코로나19 사태로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기로,
I·II·III부 예배 시 맥추감사헌금 드려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받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교회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 드리자.

맥추감사절을 맞아 오늘 I·II·III부 예배 시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또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해야겠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절과 동일하게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성도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자.

202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7월 10일(토) 영아부·유아부·유치부를 시작으로

2021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비대면과 대면 복합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진행에 차질없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정	시간	방식	주제	지도
영아부	7.10(토)~7.11(주)	토 : 10:00~12:00 주 : 10:00~12:00	토 : 비대면 (밴드 영상) 주 : 비대면 (밴드 영상)	주제 : 와! 하나님이다! 말씀 : 에스겔 37장 5절	강남희 전도사
유아부	7.10(토)~7.11(주)	토 : 10:00~12:00 주 : 10:00~12:00 12:20~13:00	토 : 비대면 (밴드 영상) 주 : 비대면 (밴드 영상)·대면	주제 : 와! 하나님이다! 말씀 : 에스겔 37장 5절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10(토)~7.11(주)	토 : 10:50~12:30 주 : 10:50~13:30	토 : 비대면 (춤&밴드 영상) 주 : 대면·비대면 (춤&밴드 영상)	주제 : 와! 하나님이다! 말씀 : 에스겔 37장 5절	허은 전도사
유년부	8.1(주)~8.8(주)	주 : 10:30~13:00	대면·비대면 (밴드 영상)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7.31(토)~8.1(주)	토 : 13:00~17:00 주 : 11:00~13:00	대면·비대면 (밴드 영상 실시간 중계)	주제 : 예수, My Wonderful Lord 말씀 : 이사야 9장 6절	이대원 전도사
중·고등부 연합	7.26(월)~8.1(주)	월~금 : 상시 토 : 13:00~18:00 주 : 09:00~11:00	월~토 : 비대면 (춤, 공유형 플랫폼, 유튜브 생중계 활용) 주 : 대면	핵심 말씀 : 로마서 12장 2절 메인 주제 : 분별할래? 서브 주제 :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8.15(주)~8.16(월)	주 : 19:00~22:00 월 : 10:00~17:00	주 : 비대면 월 : 야외 소그룹 모임 * 방역단계 허락 시 아가페타운 1박 2일 수련회	차후 추가	안용곤 전도사

2021 흥해작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면 전시는 5면을 참조 바란다.

2021 흥해작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결과

일반부
 사랑상 - 황정욱 집사
 믿음상 - 안재희 집사
 소망상 - 임종현 집사
 장려상 - 임대중 집사 김동현 집사 노애리 집사

교육부
 사랑상 - 조건우
 믿음상 - 조연우
 소망상 - 김서연 임하울 최주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 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 한가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훈 소준
-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맥추감사절 麥秋感謝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 23, 34장, 레 23장, 신 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

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 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맙시다.

(편집부)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2021년 여름성경학교가 7월 10일(토)-7월 11일(주일) 오전 10시-12시에 온라인으로 서울교회 영·유아 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가정마다 휴가 및 가족여행 등 7월을 준비 중이실 텐데,

각 가정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2021년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누림으로,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 성경공부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영·유아부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대백성들처럼 그동안 분쟁으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힘들게 예배를 이어왔던 서울교회 영·유아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다시 재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 아이들과 소통하며 기도하던 선생님들과 매주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을 통해 서울교회 영·유아부가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후퇴하지 않고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의 회복의 시간에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 영·유아부 아이들이 희망과 위로를 마음에 담아 서울교회 다음세대로 잘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리더훈련 중강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리더훈련이 방학한다. 방학은 7월 14일(수)이며 개강은 9월 1일(수)이다. 방학동안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은 다락방원들을 잘 돌아보고 유고시에 즉시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바란다.

- 중강 : 7월 14일
- 개강 : 9월 1일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언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 대상 수상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6명의 학생은 지난 13일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대구펫쇼 프로그램 중 원조개통령 이웅종 훈련사와 함께하는 '한국의 반려동물 교육인증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에 참가했다. 비장애인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성과로 대상(김지수), 장려상(강건우), 시민견상(박수진)을 받아 발달장애인 학생의 반려견 훈련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KCMC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매너 있는 반려견을 만들 수 있도록 바른 산책문화, 반려동물 교

육 캠페인과 함께 대구펫쇼 KCMC 부대행사장에서 진행됐다.

제1회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에 호산나대학, 연암대, 대경대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이 참가했다.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테스트는 반려견과 함께 걷기, 불러들이기 앉아(줄 없이), 낯선 사람과 인사 및 쓰다듬기, 방해자극 평가 등 총 10가지 항목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다.

호산나대학 6명의 학생들은 이번 시민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공수업 외의 별도 훈련 시간을 만들어 지도 교수님과 함께 반복 훈련을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했다.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KCMC) 대회에 대상을 받은 호산나대학 김지수 학생은 "이처럼 박람회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동귀 부학장님, 이종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가르침과 격려가 오늘의 성과로 보여드리게 되어 기쁘고, 1박 2일 동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는 발달장애인 애견보조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설하였으며, 실내·외 훈련장, 미용 및 목욕 실습실 등 최적의 교육 공간인 호산나애견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호산나대학 김지수 학생(중앙)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 대상 기념촬영



호산나대학 강건우 학생(왼쪽 첫 번째)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 장려상 기념촬영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교육일정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1차 교육	7월 4일(주)	부르심과 사명	서명철 목사
	7월 11일(주)	장로교 요리문답	조원영 목사
	7월 18일(주)	직분자와 전도	박미라 전도사
	7월 25일(주)	직분자와 리더십	손달익 목사
2차 교육	9월 5일(주)	직분자와 영성	전재홍 목사
	9월 12일(주)	구약개설	서명철 목사
	9월 19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9월 26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3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0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0월 17일(주)	교회행정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 회

- * 온라인 강의 영상 청취 후 보고서 제출
- * 피택자 1일 영성수련회 : 방역 단계 완화되어 가능할 때에 시행 예정
- * 피택집사 연락처 장석남 목사 010-7273-6352
- * 피택권사 연락처 박미라 전도사 010-4200-4656



진짜 교회 진짜 교인



오선아(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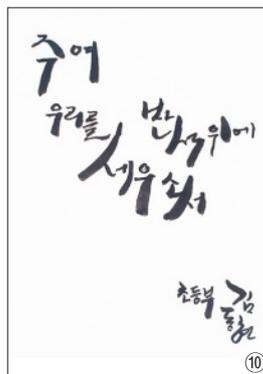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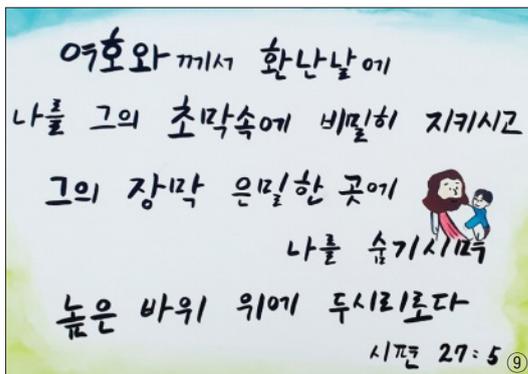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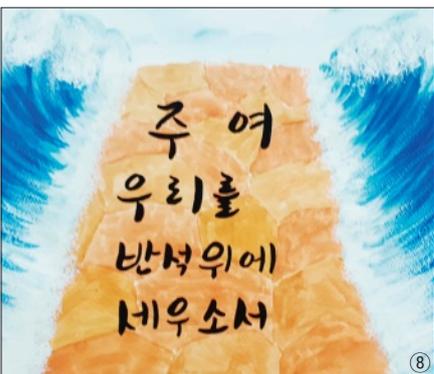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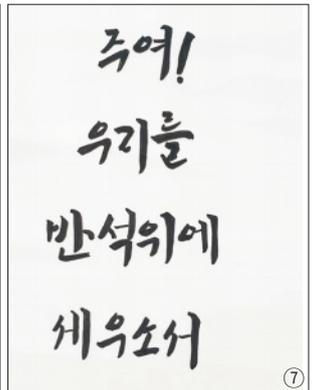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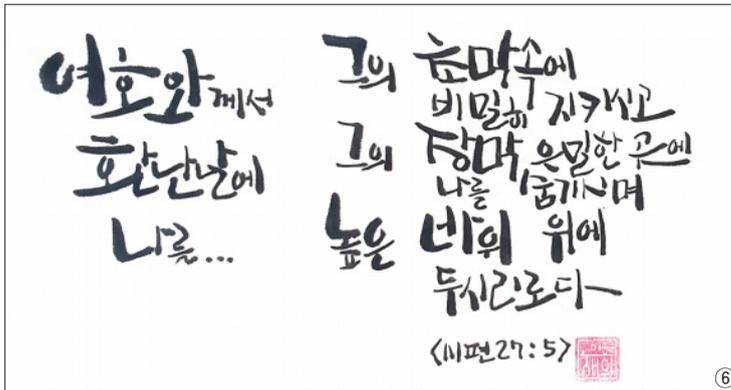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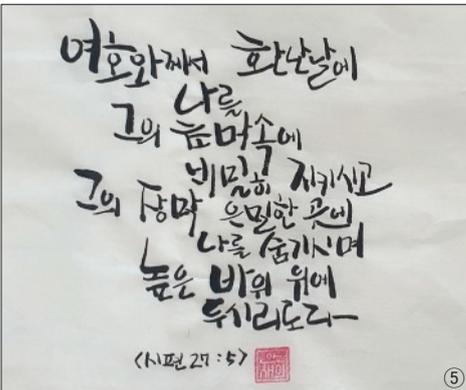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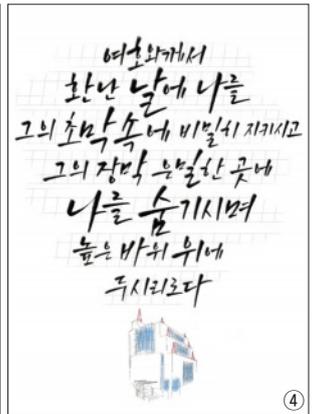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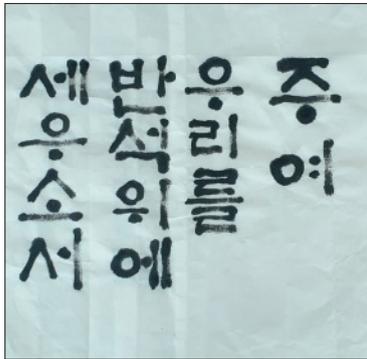
진짜 교회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는 방법을 찾는 곳이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책을 읽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안정을 찾고 위로받는 곳, 그곳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진짜 교인은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

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 수 있지만, 온라인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번 돈에 1/10만큼을 이 돈을 별게 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드리고, 매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인의 의무 중 하나이다. 모두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드리는 대표 기도도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탄식을 하지 않고 경청하여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기쁘거나 슬플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교회를 위해 힘을 쓰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교인이 되어가는 중이다. 매번 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까먹기도 하고 대표기도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귀찮을 때도 있다. 그리고 슬프거나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만 기도를 하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최선을 다해 암송을 하고, 홍해작전에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 홍해작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지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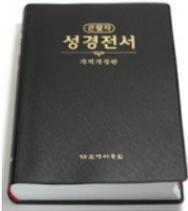


- ① ② 일반부 사랑상 황정욱 집사
- ③ ④ 일반부 소망상 임종현 집사
- ⑤ ⑥ 일반부 믿음상 안재희 집사
- ⑦ 일반부 장려상 임대중 집사
- ⑧ 교육부 사랑상 조건우
- ⑨ 교육부 믿음상 조연우
- ⑩ 일반부 장려상 김동현 집사

천국시민 양성-신앙강좌반

우리말 성경의 역사 [마지막]

- <개역개정>과 <새번역> 고어체의 장점을 살린 <개역개정>과 쉬운 현대어의 장점을 살린 <표준새번역>



130년 역사가 담겨있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



2017년 <나의 사랑하는 책> 출간

* 1983년 개역개정 및 새번역 작업 착수

1983년부터 시작된 <개역개정> 및 <표준새번역> 작업에는 각 교단별로 파송된 대표들이 두 개의 다른 버전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멤버들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다. 이렇게 동시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개역>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쉬운 우리말 성경을 시도하고자 제작한 <공동번역 성서>가 번역상 미흡한 점이 많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타국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도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은 어느 하나의 성경만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성서공회에서 두 가지 공식 성경을 동시에 출간하여 예배에서는 고어체의 <RSV>(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을, 가정에서는 쉬운 영어인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을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도 예배에서 고어체의 <루터 성경>(Lutherbibel)을, 가정에서는 쉬운 독일어인 <연합번역 성경>(Einheitsübersetzung)을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고어체의 <개역개정>과 쉬운 우리말의 <표준새번역>을 동시에 출간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제 고어체의 성경과 쉬운 자국어의 성경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새번역>의 출간

1993년 <표준새번역>이 출간되었다. <개역개정>과 <표준새번역> 모두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기반으로 번역되었는데, 번역의 기법 상 <개역개정>의 경우 고어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표준새번역>의 경우는 쉬운 우리말로 쉽게 이해되는 방향으로 했기에 분사를 풀어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성경 원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었다. 1993년 출간된 <표준새번역>은 보완작업을 통해 2001년 <표준새번역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2004년에는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본문 그대로인 상태에서 버전의 명칭만 <새번역>으로 수정하였다. <표준새번역 개정판>은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등을 참고하여 패러그래프로 본문을 인쇄한 반면 <새번역>은 패러그래프로 모두 해체하여 한 절씩 인쇄하였다. 그 결과 성경을 통독할 때 한 절씩 인쇄된 본문을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17년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제

목으로 새번역 본문이 패러그래프로 인쇄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본은 종이 가 얇아 뒷면 글자가 비치 보이고 글자도 작고 흐려서 추천할만하지는 않다.

* <개역개정>의 출간

1998년에는 <개역개정>이 출간되었다. <개역>의 본문에서 무려 73,000여 군데를 수정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2003년 출간된 <개역개정 4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최종 판본이다.

* <개역개정>과 <새번역>의 조화로운 사용

현재에는 30여 종의 사번역이 있으나 130년 역사를 간직한 공식번역은 <개역개정>과 <새번역> 두 가지뿐이다. 성경의 사번역은 보증할 수 없으므로, 공식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 번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둔 <새번역>을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개역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작업의 책임자였던 장신대 나채운 원로교수는 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역개정>을 읽으면 내용이 이해 됩니까? 내가 만든 사람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새번역> 보셔야지요” 장신대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성경 내용 이해도 테스트를 한 결과 똑같은 본문이 주어졌을 때 <개역개정>을 읽고 답한 경우 10개 중 4-5개를 답한데 비해, <새번역>을 읽고 답한 경우는 거의 10-9개를 답하였다.

성경을 통독할 때는 읽는 본문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 통독하기보다는 <새번역>으로 통독하는 것이 좋다. 물론 예배 시간에 사용하거나, 한 절만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또는 쉬운 우리말보다는 권위 있는 고어체가 유용할 때는 <개역개정>의 사용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동정

■ 손달익 목사는 지난 7월 2일 CBS재단이사장 이인식을 가졌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에도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풋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기도에 힘쓰며, 피택자 교육을 통하여 잘 준비된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19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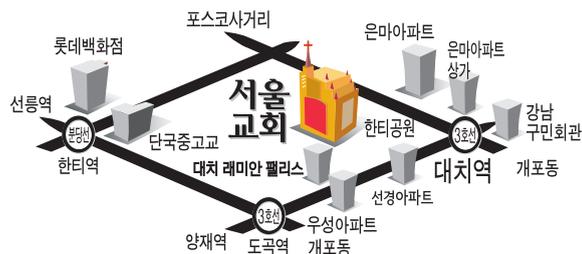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5일	월	시 130-136		창 42-46	
7월6일	화	시 137-144		창 47-50	
7월7일	수	시 145-150		출 1-9	
7월8일	목	잠 1-3		출 10-14	
7월9일	금	잠 4-6		출 15:1-21:32	
7월10일	토	잠 7-9		출 21:33-26:37	
7월11일	주일	잠 10-13		출 27-3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